

退溪學 研究動向과 退溪의 處世觀**

김광순*

|| 차례 ||

1. 머리말
 2. 退溪學의 研究動向
 3. 退溪의 處世觀
 4. 맺는 말
-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론에서 논의한 바를 결론적으로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학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걸쳐져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철학분야와 문학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둘째, 퇴계학에 대한 국외 연구동향은 일본, 대만, 홍콩, 중국, 구미제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에 일본의 경우가 가장 활발하여 논문만도 200여 편에 이르고, 대만의 경우는 퇴계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40여 명, 관련논문은 70여 편에 달한다. 홍콩의 경우는 1987년에 국제퇴계학회를 개최한 후에 지금까지 홍콩사람으로서 퇴계학 관련학자가 4명 정도 있다. 중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120여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국제퇴계학발표대회에 발표된 논문만 110여 편이다. 구미제국의 경우 미국, 소련,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호주, 체코, 이태리, 유고, 스위스 등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100여 편의 논문이 나왔음을 밝혔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3.11.30 日本 九州 正行寺 春日山 雅樂御堂의 境內에 세운 李退溪 先生 顯彰碑 除幕式 後 「退溪學研究 動向과 退溪의 處世觀」에 대한 주제 강연 원고임을 밝혀 둔다.

셋째, 지금까지 퇴계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18 차례나 되고 이에 참가한 나라도 동양 5개국, 구미제국이 10개국이나 된다.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만도 576편이나 되어 퇴계학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계학과 관련된 연구 기구와 학회설립 현황도 도표로 제시하였다.

넷째, 퇴계의 처세관을 存養省察과 繼往開來, 經濟倫理와 勤儉節約, 政治要諦와 與民同樂, 修己治人과 知行並進, 上通天文하고 下達地理하여 能察人事로 나누어 고구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存養省察하고 參古酌今하여 繼往하면서도 開來하였고, 근검절약하되 정직한 경제윤리를 강조한 점, 정치의 기본 要諦는 與民同樂이란 점, 修身齊家로부터 시작하는 修己治人을 知行並進해야 한다는 점, 위로는 天文에 통하고 아래로는 地理에 밝아 능히 사람의 내일을 알아볼 줄 아는 知人之感의 식견을 가지고 세상에 처신하였기에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았던 문신이며 세계적인 학자로서 추앙을 받게 되었음을 밝혔다.

주제어 퇴계학의 연구동향, 퇴계의 처세관

1. 머리말

退溪는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에 추앙받고 있는 동방 최고의 巨儒이며 문신으로서 조선조 연산군 7년(1501)에 태어났다. 자는 景浩, 호는 退溪, 본관은 眞寶이며, 進士 堉의 아들이다. 34세에 식년문과에 급제, 공조판서, 예조판서, 양관대제학을 역임하고 선조 3년(1570)에 別逝했다. 일생동안 학문에 전념한 학자적인 태도는 후세 士林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중심사상이 된 理氣, 四七論에 대해 高峰 奇大升과의 8년간의 논쟁, 李珣와의 논의는 후대 退溪와 栗谷을 정점으로 하는 兩大山脈을 이루었고 나아가 퇴계학과의 원류가 되어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東洋은 물론 西歐에까지 전파되어 세계적인 학자로서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퇴계학에 관한 연구 논저는 약 50여 권, 연구 논문은 1300여

편으로 파악되고 있다.

퇴계학의 총체는 經學, 性理學, 文學, 數理學, 禮學, 史學, 教育, 政事, 選學, 書法 등으로 구획 지을 수 있겠으나, 이 중에서도 철학과 문학영역의 비중이 대부분이다. 퇴계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도 15개국 학자들이 참가하여 18차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계학 연구 동향을 국내외로 나누어 고찰하고, 퇴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기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추앙을 받고 있는지를 퇴계의 평소 생활 철학과 구전 자료를 통해 본 퇴계의 처세관을 穿鑿하고자 한다.

2. 退溪學의 研究 動向

1) 國內 研究 動向

퇴계학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모두 거론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구된 저서는 말할 것도 없고 논문만도 1300여 편이 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학자들이 쓴 논문이나 저서들 가운데 철학 분야와 문학 분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 두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연구 동향을 알아 본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교육학, 정치, 경제학, 예학, 사학, 서법 등 그의 학문은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되고 있다.

(1) 哲學 分野

퇴계학의 철학적 연구 경향은 퇴계의 철학적 저술에 대한 문헌 고증적 연구, 주요 철학적 형성 배경과 퇴계 철학 분야의 개념적 특성 및 다른 성리학자들과의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퇴계의 사상사적 계승에 대한 연구, 퇴

계사상의 현대 철학적 이론을 통한 연구, 퇴계의 철학이론을 현대의 동서철학자의 이론과 비교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철학에 관한 논문만도 수백 편이 된다. 문헌 고증적 연구는 『心經』, 『近思錄』, 『朱子語類』 등의 문헌이 퇴계철학에 미친 영향과 『啓蒙傳疑』, 『朱子書節要』, 『宋元明理學通錄』 등의 저술에서 나타난 퇴계의 철학적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다. 개념적 이해에서는 주희를 비롯한 宋明代 중국성리학자의 개념과 비교 연구하면서 그 일치점에 대한 분석과 독창성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사상사 속에서의 연구는 그의 성리설과 뚜렷한 차이를 지닌 기호학과와의 논쟁,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과에서의 논의, 양명학과의 연관된 영향이나 쟁점 등이며, 또 새로운 시대의 철학적 언어와 방법을 통한 퇴계철학의 이해를 위한 해석학, 철학적 인간학, 실존철학, 과학철학, 유토피론 등의 서양철학 체계로서 재해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서양과의 현대철학 유파로서가 아니라 토마스아퀴나스, 칸트, 헤겔, 하이데커, 화이트헤드 등 특정한 서양 철학자의 철학이론과 삶의 자세를 퇴계의 철학과 생애에 비교하는 연구는 퇴계학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국권 침략시기와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적 학문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퇴계학의 문제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 초기에는 퇴계의 사상과 저술에 대한 연구가 계몽적 소개에 치중되면서 한국 유학의 대표적 유산으로 간주되었다. 일본 학자 松田甲은 퇴계학에 관한 10편 이상의 논문¹⁾을 발표하였으며 퇴계학의 일본전파와 퇴계저술의 문헌 연구 및 퇴계학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제기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또 이 시기에 장지연²⁾은 한국유학사에서 최초로 통사적인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병도³⁾는 퇴계학을 '학파 및 당파분열시대의 유학'으로 다루었고,

1) 松田甲, 『韓日關係史研究』, 成進文化社, 1982 참조.

2) 張志淵, 『朝鮮儒學淵源』, 三星文化財團出版社, 1975 참조.

현상윤도 그의 『조선유학사』⁴⁾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퇴계사상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해방이후에는 반전통적 구미화를 지향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사상의 연구는 소외되었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관심이 쏠트기 시작하여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퇴계사상의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이 시기에는 계몽적인 단계를 넘어서 성리설을 비롯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잡지에 소개된 교양적인 논문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학술 논문집에 수록된 무게 있는 논문⁵⁾들이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퇴계학'이라는 명칭이 학계에서 정식으로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서 퇴계학 연구는 종전의 연구 성과에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퇴계선생 4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퇴계학연구』가 간행되고 퇴계학 연구원이 창립되어 『퇴계학보』가 간행되고 있으며 퇴계학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소가 각 대학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연구소가 경북대(1973)를 비롯하여 단국대(1987), 안동대(1989)의 퇴계연구소가 그것이다. 이 시기는 퇴계의 철학사상에 관한 전 분야라 할 만큼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양적으로 한국사상의 다른 분야와 비교한다면 과포화상태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의 업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동일한 주제로 반복된 논문이 발표되면서 질적 깊이에서도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다⁶⁾고 하겠다.

3) 李丙燾, 『韓國儒學史略』, 亞細亞文化社, 1986 참조

4)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48 참조

5) 金光淳, 「退溪文學中所現的修辭論之現代의 照明」, 『東方漢文學』, 東方漢文學會, 1995 참조

6) 琴章泰, 「退溪學研究의 回顧와 展望-哲學的領域」, 『韓國의 哲學』18,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0 참조.

(2) 文學 分野

방대한 퇴계학 연구에 관한 논저 중 문학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룬 저서 약간 권을 위시하여 논문이 대략 200여 편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퇴계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는 대체적으로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조, 가사, 문학관, 한시가 그것이다. 시조는 '도산12곡'과 '청량산가'가 다루어졌는데, '도산12곡'은 조운제, 이가원, 서수생, 최진원, 이원주, 김광순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조운제는 퇴계시조에 관한 연구의 선단을 열어 「자연미의 발견」⁷⁾을 그 내용의 핵심으로 한 강호가도의 전개란 맥락에서 퇴계의 「도산12곡」을 떠올렸고, 이가원은 '도산12곡' 각 편의 주제를 천명하고 해설을 하였으며⁸⁾, 서수생은 정서와 미의 특성을 「純靜美」·「自然文學性」·「溫軟深思性」·「主觀性과 音樂性」 등 다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실을 수용하여 해설하였다.⁹⁾ 최진원은 도남선생의 이론을 발전·심화시켜 강호가도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한 연구에서 '도산12곡'을 자연의 규범성을 즐기는 「賞自然의 풍류」로 규정하였고¹⁰⁾, 이원주는 퇴계의 求退의 의미를 「立言垂後를 위한 적극적인 지향」에서 찾아야 한다¹¹⁾고 하였다. 김광순은 '도산12곡'을 통해 '퇴계의 자연관과 인간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¹²⁾, 다시 '퇴계 문학에 나타난 수양론의 현대적 의미' 등에 대해 논의¹³⁾하였다. 한편 이가원은 '청량산가'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도연

7) 趙潤濟, 「陶山十二曲과 孤山九曲歌」,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참조.

8) 李家源, 「李滉」,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참조.

9) 徐首生, 「退溪文學의 研究」, 『韓國의 哲學』1, 慶北大 退溪研究所, 1973 참조.

10) 崔珍源, 「敬, 風流, 賞自然, 國文學과 儒學」, 『韓國의 傳統思想과 文學』, 서울대출판부, 1982 참조.

11) 李源周, 「道學派의 文學」,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참조.

12) 金光淳, 「退溪文學에 있어서 自然觀과 人間觀」, 『淵民學志』1, 1993 참조.

13) 金光淳, 「退溪文學에 나타난 修養論의 現代的 照明」, 『어문론총』28, 경북어문학회, 1994.

명의 '桃花源記'와의 관련하여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전통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가사는 '공부즈컬리가', '還山別曲', '相杵歌', '牧童問答歌', '樂貧歌' 등이 이가원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가원¹⁴⁾은 작자가 퇴계임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과 각 작품이 갖고 있는 주체적인 요소의 천명 및 작품의 이본 문제 등을 논급하였다. 서원섭¹⁵⁾은 작품내용 중의 단락별 해설과 형식의 확인에 주안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가사 작품들 중 '환산별곡'과 '목동문답가'의 경우는 이동영¹⁶⁾, 김동욱¹⁷⁾에 의해 작자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

문학관에 관한 연구로는 그의 시조 '도산12곡'의 연구과정에 주로 그 跋文의 검토를 통해서 그 중요한 일부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서수생은 "도문일치의 문학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학과 문학의 밸런스가 맞는 「道文兩立, 道文折衷主義文學觀」을 내세웠다"고 하였다.¹⁸⁾ 조동일¹⁹⁾은 주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퇴계의 문학관을 주리적인 것이라" 하여 다분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노형²⁰⁾은 퇴계의 주리적 입장과 이에 입각한 개인의 수양이 「理弱氣強」의 철학적 논리와 마찬가지로 훈척에게

- 14) 李家源, 「退溪의 詩歌文學研究」, 『退溪學研究』, 退溪先生四百週忌紀念事業會 1972 참조
- 15) 徐元燮, 「退溪의 陶山十二曲研究」, 『韓國의 哲學』2, 慶北大 退溪研究所 1974 참조.
- 16) 李東英, 「還山別曲에 대하여 -退溪의 改作이 아니다」, 朝鮮日報, 1955. 9. 17 참조
- 17) 金東旭, 「牧童問答歌小考」, 『伽藍 李秉崎博士頌壽論文集』, 同刊行委員會, 1966 참조
- 18) 徐首生, 「退溪는 文學을 어떻게 보았나 -道·文 兩立의 文學觀」, 『文學思想』25, 文學思想社, 1974 10 참조.
- 19) 趙東一, 「李滉」, 『韓國文學思想史試論』, 知識產業社, 1978 참조
- 20) 李魯亨, 「退溪의 哲學思想과 文學思想의 社會的 性格」, 『韓國의 哲學』16 慶北大 退溪研究所, 1988 참조

배척을 당하는 사람의 현실비판과 모순극복이라는 사회성, 다시 말하면 퇴계의 「理氣分屬」, 「理善氣惡」 등의 심성관이 그 당시 약세에 몰린 사람세력이 훈척세력을 극복하려는 그런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퇴계의 주리적 문학관도 이와 같은 궤에 따른다고 하여 조동일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한시에 대한 연구로는 이가원 등에 의해 한문학사류의 서적에서 개괄적으로 언급되었으며²¹⁾ 전면적 고찰은 중국인 王甦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그는 내용상으로 「言志詩」, 「述懷詩」, 「山水詩」, 「感事詩」, 「詠物詩」, 「梅花詩」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또 시각을 달리해서 「理語詩」와 「理趣詩」를 따로 설정해 놓았다.²²⁾ 그 뒤 한국에서 비로소 개괄적으로 특성을 평가한 성과물들이 나왔는데, 이동환은 퇴계시의 시적 비전을 「초월」과 「화해」로 파악하고²³⁾ 최근덕은 「순수의 사상」과 「풍류의 사상」²⁴⁾, 이원주는 「구도의 시」와 「성도의 시」²⁵⁾, 이가원은 「溫柔敦厚」²⁶⁾를 퇴계시의 특징으로²⁷⁾ 잡았다.²⁸⁾

2) 國外 研究 動向

퇴계학은 그의 생존시에 이미 西厓 柳成龍을 통하여 중국에 소개되었

21) 李家源, 「退溪詩의 特徵 - 溫柔敦厚에 대하여」, 『退溪學報』43, 退溪學研究院, 1984 참조.

22) 王甦, 「退溪詩學(1)-(終)」, 『退溪學報』20-25, 退溪學研究院, 1978-1980 참조.

23) 李東歡, 「退溪의 詩에 대하여」, 『退溪學報』19, 退溪學研究院, 1978 참조.

24) 崔根德, 「退溪思想의 詩의 照明」, 『韓國學報』16, 一志社, 1979 참조.

25) 李源周, 「退溪先生의 文學觀」, 『韓國學論集』8, 계명대학교, 1981 참조.

26) 李家源, 「退溪詩의 特徵 - 溫柔敦厚에 대하여」, 『退溪學報』43, 退溪學研究院, 1984 참조.

27) 李東歡, 「退溪文學研究의 成果와 課題 - 退溪文學研究 論著目錄」, 『韓國의 哲學』18, 慶北大 退溪研究所, 1990 참조.

28) 金光淳, 「退溪學의 研究 現況과 現代의 意味」, 『동방한문학』12, 동방한문학회, 1996 참조.

고29) 일본에서는 퇴계선생 서거 후 20여년 뒤에 임진왜란을 통해 그의 저서 11종 46권 45책이 전파되어 편집,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계학과까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퇴계학이 중국과 일본에 일찍부터 소개되었으나 다른 국가는 1970년대부터 처음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뒤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18차까지 연속된 퇴계학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동양에는 대만과 홍콩, 서양에는 미국, 독일, 러시아 등에도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퇴계학회가 조직되고 서울 퇴계학 연구원은 해외 각국에 퇴계학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퇴계 총서를 출판하여 세계 각국 대학과 공공 도서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³⁰⁾

퇴계학에 관한 국외 연구 동향을 보면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연구를 시작했고 또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소의 설립이나 퇴계집의 번역 사업 등이 이를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구미제국 등 퇴계에 대한 관심은 동양학을 하는 학자는 물론 서양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구미제국 등으로 나누어 그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日本

퇴계의 학문이 일본에 알려진 것은 퇴계 沒 후 20년 경과한 1590년 조선조에서 통신사로 도일한 퇴계의 高弟 金誠一이 소위 일본유학의 비조인 藤原惺窩(1561-1619)에게 이야기한 것이 최초였다.³¹⁾ 그 후 임진왜란 때에 강제로 끌려간 姜沆이 당시의 일본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퇴계학이

29)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서애집』2, 『고전국역총서』12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pp.185-186 참조

30) 신귀현, 『퇴계학의 국제화와 동서철학의 비교』, 영남대 출판부, 2003, pp.13-14 참조

31) 松田甲, 『韓國關係研究』, 成進文化社, 1982, p.508 참조.

본격적으로 일본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德川幕府의 시대가 되어 주자학을 채용하여 퇴계의 학문은 점점 존송 받게 되었다. 퇴계의 학문 중 四端七情에 관한 변론은 德川時代 초기의 藤原惺窩와 林羅山의 주자학의 이해에 심화시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山崎闇齋가 퇴계의 학문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학문을 구축했다.

일본 九州 최후의 崎門學者라고 할 수 있는 楠本碩水도 퇴계를 존송하였는데 松田甲의 말을 빌리면, 퇴계는 德川幕府의 창업시대부터 시작하여 王政維新 후의 大正時代に 이르기까지 거의 300년에 걸쳐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³²⁾

일본 주자학에 퇴계를 존송하고 학문을 수용한 계파로서 熊本實學派라 칭하는 大塚退野의 門流가 있다. 그리고 熊本實學派 당수 橫井小楠은 1840년경 동지학자인 米田是容, 元田永孚 등과 실학연구회를 창설하여 退溪大塚退野의 학설을 계승하는 주자학이야말로 진실된 학문이며 정치의 이념은 치국안민의 道와 利用厚生의 기본을 두텁게 하는 일에 있다³³⁾고 결론짓고 있기도 하다.

임진왜란을 통하여 일본에 전파된 퇴계의 저술이 德川幕府시대에 널리 판각 출판되었으나 그것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던지, 효종 때는 무역 거래를 통하여 퇴계의 저술을 조선으로부터 더 많이 구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評成政을 조선에 파견하여 퇴계집을 포함한 14종의 서적을 요구하였으나, 임진왜란 동안 조선의 서적들이 많이 탈취 혹은 소실되고 더 이상 간행조차 하지 못하여 요구한 전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내어주었고³⁴⁾, 현종 때도 왜인이 『退溪集』과 『故事撮要』를 구입하

32) 松田甲, 전게서, p.601 참조.

33) 橫井小楠, 『生涯と業績』, 熊本市教育委員會, 1898. p.5 참조

34) 조선왕조실록CD-ROM간행위원회 편, 『국역 조선왕조실록』(컴퓨터파일), 증보판 제 2집(서울시스템, 1997), 효종 05/11/07(계사) 참조.

고자 하였으나 이때는 허락조차 하지 않았다.³⁵⁾ 이와 같은 퇴계 저술의 전파는 곧 일본에 네 개의 퇴계학파가 형성되었으니,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藤原惺窩(1561-1619)학파이다. 이 학파의 형성은 일본의 주자학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에 있어서 퇴계학파는 京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었고, 그 중심인물은 藤原惺窩와 林羅山이며 林羅山の 후손 林鵝峰 林風岡으로 계승되었다. 藤原惺窩의 문하에는 네 선생이 있으니 林羅山, 松永尺五, 堀杏庵, 那波活所이고, 松永尺五의 문하에 木下順庵이 있고, 그 門下에 다시 新井百石, 室鳩巢, 雨森芳洲天, 祇園南海, 神原篁洲命 등 다섯 명의 門下가 있다. 藤原惺窩는 「天命圖說」과 「延平問答」을 읽고 이를 매우 존중하여 林羅山에게 전수하였으며, 그는 22세 때(1595년, 壬亂 3년 후) 퇴계가 편찬한 『朱子書節要』 20권을 이미 읽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퇴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 학파의 계보는 藤原惺窩 → 林羅山, 松永尺五, 堀杏庵, 那波活所 → 林鵝峰, 木下順庵 → 林風岡, 新井百石, 室鳩巢, 雨森芳洲天, 祇園南海, 神原篁洲命³⁶⁾로 이어왔다.

둘째, 山崎闇齋學派의 형성이다. 이 학파는 山崎闇齋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 학파의 開祖는 山崎闇齋이며 京都출신이다. 따라서 이 학파도 역시 京都를 중심으로 형성 전개되었으며 그 학통을 이은 대표자들 중 퇴계학파를 형성하는 대표자들이 많았다. 山崎闇齋는 33세 때 藤原惺窩나 林羅山이 읽지 못했던 『自省錄』과 『李退溪文集』을 읽고 感發興起하였으며 『朱子書節要』를 읽고³⁷⁾ “李退溪의平生 精力을 여기에 쏟다”, “朱書を

35) 『朝鮮王朝實錄』 2, 현종 05/06/03(계해) 참조.

36) 阿部吉雄 「日本の朱子學」, 『퇴계학보』 5·6, 퇴계학연구원, 1975, p 119-134 참조

37) 阿部吉雄, 「李退溪 -그의 行動과 思想(3)」, 『퇴계학보』 23, 퇴계학연구원 1979.

抄出한 자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退溪의 節要같은 것은 본 일이 없다”³⁸⁾라고 했다. 그리하여 阿部吉雄은 “山崎闇齋에 이르러 이퇴계의 인물, 학문의 진가가 비로소 인식되고 표창되었던 것³⁹⁾이라고 설명했다. 崎門三傑 중 퇴계를 가장 깊이 연구한 佐藤直方은 퇴계의 학문적 위치를, “맹자 이래 周.程.張.朱, 그 정맥을 얻었다”⁴⁰⁾라고 하였다. 佐藤直方은 또 그의 만년(1716)에 지어 자신이 尊信하는 도학의 궁극적 목적을 제자들에게 제시한 그리고 제자들과 후대로부터 애송되고 존중된 유명한 「冬至文」에서 조선 이퇴계 이후 이 도를 감당해 보려는 이 있음을 아직 나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⁴¹⁾ 佐藤直方은 퇴계의 『朱書節要』와 朱子の 「語類」에 있는 「訓文人」이라는 글을 도학 공부의 要約之書로 존중하였으며 그의 사후 제자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함께 강독하기 위해 諸先生朱書節要讀會之規와 諸老先生訓文人會約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독회를 개최하였다.⁴²⁾ 이 학파의 계보를 보면, 山崎闇齋 → 佐藤直方, 淺見綱齋, 三宅尙齋 → 稻葉迂齋, 野田剛齋, 永井隱求, 酒井脩敬, 若木強齋, 村土淡齋, 蟹養齋 → 陶葉默齋, 西依成齋, 中村習齋 → 奧平栖遲庵, 古賀精里, 深田香質 → 三上是庵, 細野要齋 → 石井周庵 → 田中蛇湖, 伊庭弘道, 田原擔庵, 梅宅芳男⁴³⁾으로 이어졌다.

셋째, 大塚退野學派이다. 이는 일본 남부의 九州, 熊本지역에서 大塚

p.109 참조.

38) 阿部吉雄, 「左藤直方派의 李退溪尊信」, 『퇴계학보』3, 퇴계학연구원, 1974, p.33 참조.

39) 『퇴계학보』23, p.109 참조.

40) 阿部吉雄, 전게서, 제3집 p.29 참조.

41) 阿部吉雄, 전게서, pp 29-30 참조.

42) 신귀현, 전게서, pp.26-38 참조

43) 松戸光夫, 「退溪學脈을 이은 上塚道學」, 『퇴계학보』2, 퇴계학연구원, 1994, p.74 참조.

退野를 開祖로 형성되었다. 大塚退野는 원래 양명학에 종사하다가 퇴계의 『自省錄』과 『朱書節要』를 읽고 퇴계를 흠모한 나머지 그의 호를 따와서 이름을 退野라고 부르고 마침내 程朱學에로 전향하였다. 그는 학문이 인간의 사는 법을 자극하게 하여 인생의 환희를 얻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쓸모 있는 실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퇴계의 『自省錄』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⁴⁴⁾ 이 학파의 계보는 大塚退野 → 平野深淵 → 森成齋 → 藪孤山 → 橫井小楠 → 元田永孚 → 宇野哲人⁴⁵⁾으로 맥을 잇고 있다.

넷째, 上塚學派이다. 이는 江戸(지금의 東京) 근처 上塚(지금의 千葉) 지역에 퇴계학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학파이다. 上塚學派는 佐藤直方の 제자 酒井脩敬에 의해서부터이다. 그는 江戸幕府의 무사로 교량수리 공사를 하기 위해 上塚에 출장 와서 이곳의 名主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학문을 진흥시키도록 장려하고 和田義坦과 鈴木養察 두 청년을 江戸에 있던 陶葉默齋의 부친 宇齋의 문하로 유학시킨 후 上塚의 많은 젊은이들이 宇齋의 문하에 수학하였으며 그들 중 가장 유명한 8명의 학자를 사람들은 上塚八子라 지칭하고 존경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酒井脩敬이 上塚道學의 開祖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파의 형성자는 陶葉宇齋의 아들 陶葉默齋이다. 그는 江戸에서 태어나 16세 때 그의 부친과 함께 崎門에서 同門修學한 野田剛齋의 제자로 입문 수학하여 20세 때 이미 명성이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그는 그의 부친과 스승을 통하여 山崎학맥을 계승하였으며 이미 21세 때부터 부친의 자제들인 上塚八子の 주선으로 上塚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26세 때 부친 陶葉宇齋가 서거하자 그 門

山崎道夫, 「陶葉默齋와 退溪學」, 『퇴계학보』 36, 퇴계학연구원, 1986, p 127 참조

44) 신귀현, 전계서, p 39 참조

45) 友枝龍台郎, 「李退溪와 熊本實學」, 『퇴계학보』 15, 1977, p 170 참조.

弟子들 모두를 가르쳤다.⁴⁶⁾ 41세 때 그는 京都로 가서 崎門三傑의 한 사람인 三宅尙齋의 제자인 久米訂齋를 방문하고, 山崎闇齋, 淺見綱齋, 三宅尙齋의 묘소를 참배한 뒤 이들의 사적을 자세히 조사 확인하면서 崎門學派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⁴⁷⁾ 이 때 그는 이미 사람들이 서쪽에(京都) 久米訂齋, 동쪽에(江戶) 稻葉默齋라고 지칭할 만큼 대학자가 되었다. 京都에 4개월간 머무른 뒤 그는 三宅尙齋의 귀중한 서적을 받아 가지고 江戶로 돌아왔다. 47세 이후 默齋는 江戶를 떠나 上塚에 영주할 결심을 하고 여기서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上塚道學派를 형성하였다.⁴⁸⁾ 이 학파의 계보는 酒井脩敬 → 鈴木義察, 櫻木清十郎, 安井武兵衛, 安井半十郎, 布琉川彌右衛門, 鷺澤幸七郎, 平山安左衛門, 鈴木兵右衛門 → 陶葉默齋 → 奧平栖遲庵 → 三上是庵 → 石井周庵 → 田中蛇湖 → 梅擇芳男⁴⁹⁾으로 이어졌다.

明治維新이후 일본은 근대화를 추진하여 문화발전을 서구화하기 시작한 결과, 동양학 전반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상당히 저조했으며 서구적 학문 방법의 도입에 따라 『自省錄』, 『朱書節要』와 같은 단행본이나 요약서 대신 『朱者文集』, 『朱者語類』와 같은 전집에 관한 연구로 학풍이 바뀌어졌다.

그리하여 일본의 퇴계학 연구는 그 맥이 차츰 단절되어 가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 다시 퇴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熊本 출신 宇野哲人이 1914년에 『支那哲學講話』 속에 李退溪를 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논술하고 있을 정도였다.⁵⁰⁾ 일제 때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高橋亨이

阿部吉雄, 「이퇴계 - 그의 행동과 사상」, 『퇴계학보』23, 퇴계학연구원, 1985, pp.107-109 참조.

46) 松戶光夫, 「退溪學統 이은 上塚道學」, 『퇴계학보』2, 퇴계학연구원, 1974, p.70 참조.

47) 山崎道夫, 「稻葉默齋와 退溪學」, 『퇴계학보』36, 퇴계학연구원, 1982, p.99 참조.

48) 신귀현, 앞의 책, pp 41-42 참조.

49) 松戶光夫, 앞의 논문, p.76 참조.

1929년에 「조선유학사에 있어서 主理派, 主氣派의 발달」이라는 장편의 논문으로 퇴계와 율곡의 이기철학논쟁을 자세히 분석하여 퇴계와 율곡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에 근무한 松田甲도 「日本 朱子學者의 李退溪觀」, 「李退溪의 遺蹟」, 「陶山書院의 追憶」, 「教育에 關한 勅語와 李退溪」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阿部吉雄은 「山崎闇齋와 李退溪」라는 책을 인쇄하여 검인까지 받았으나 그 발행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어서 판매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이 책을 탈고한 뒤에 그 요점을 간추려 종전되기 한 해 앞서 「李退溪」라는 제목으로 한 권이 출간되었다고 한다.⁵¹⁾ 이 외에도 高橋亨의 「李退溪」, 白神壽吉의 「李退溪先生傳」, 박종홍의 「李退溪先生の 教育思想」이란 논문이 발표되었다.⁵²⁾ 해방이후 阿部吉雄은 일본으로 돌아가 1965년 「日本 朱子學과 朝鮮」이란 저서를 출간하였다.⁵³⁾ 1972년 일본 퇴계학연구의 두 원로 宇野哲人と 阿部吉雄이 협력하여 퇴계학연구회가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에 宇野哲人, 2대 阿部吉雄, 3대 宇野靖一이 선임되었다. 이 연구회의 주관으로 서울 퇴계학연구원과 협력하여 『日本刻板李退溪全集』 상하 2책을 영인 출간하였으며 이 연구회와 서울 퇴계학연구원 간은 물론 熊本 퇴계학연구회와 부산 퇴계연구원 사이에도 정기적인 학술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퇴계학연구는 이제 다시 그 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종전 이후 일본의 퇴계학 연구가 진출된 배경은 1930년 경 동경 우에노 공원(上野公園)에 백제 출신 王仁 박사가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 준 공덕을 기념하기 위해 송덕기념비를 세웠던 것은 한국계 일본인 金容基의

山崎道夫, 앞의 논문, p 76 참조

50) 宇野哲人 『中國哲學史』, 金の里社, 1926, p.18 참조

51) 宇野哲人, 앞의 책, 창간호, pp.22-27 참조

52) 宇野靖一 앞의 논문 p 21 참조.

53)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部, p 195 참조.

노력이었다. 그는 종전 후에 다시 왕인 박사에게 비길만한, 일본의 정신문화 연구에 영향을 끼친 제2의 은인인 이퇴계의 비석을 왕인 박사의 비석과 나란히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당시 일본 철학계의 원로인 宇野哲人에게 자문을 구하자 宇野哲人은 당시 일본에서 이퇴계연구의 제 일인자였던 阿部吉雄과 상의하여 비석을 세우기보다는 퇴계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리하여 1972년에 일본 이퇴계연구회가 창립되었다.⁵⁴⁾ 현재 일본에 있는 퇴계연구회로는 1972년 李退溪研究會(東京, 宇野哲人)⁵⁵⁾, 1982년에 李退溪研究會(熊本, 友枝龍太郎), 1982년 李退溪研究會(千葉, 高橋進), 1987년 國際退溪學會熊本支部, 1987년에 國際退溪研究九州支部(九州, 현재 회장, 疋田啓佑) 등이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는 국제퇴계학회에만 5편 이상의 논문을 쓴 사람으로 高橋進(10)⁵⁶⁾, 友枝龍太郎(6), 佐藤仁(5), 小川晴久(5) 등이 있다. 그리고 저서를 낸 사람도 阿部吉雄(4권)⁵⁷⁾, 友枝龍太郎(1권), 高田誠二藤原一毅(1권), 山崎道夫(1권), 高橋進(1권), 齋藤勝己(1권) 등 퇴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다. 지금까지 퇴계에 관한 논문만 200여 편⁵⁸⁾이 넘는다.

(2) 臺灣

蔡茂松이 1958년 來韓하여 成大에 입학하여 1962-1971년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退溪·栗谷 性理學的 比較研究」⁵⁹⁾로 박사학위를 받았

54) 신귀현, 『퇴계의 국제화와 동서 철학의 비교』, 영남대출판부, 2003 참조.

55) 팔호 안은 중심지역과 초대 회장, 단 九州는 현재 회장임.

56) 팔호 안의 숫자는 발표한 논문 편수를 뜻함.

57) 팔호 안의 숫자는 저서 수를 뜻함.

58) 金世漢, 「日本에서의 退溪學研究 動向과 成果」, 『韓國의 哲學』19,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1 참조.

59) 蔡茂松, 「退溪栗谷性理學的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博士論文, 1971 참조.

다. 채무송은 그 뒤 75년에 「朱子性情論及李退溪四端七情說研析」을 〈退溪學報〉(8호)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후 韓臺間的 교류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가 1979년 鄭飛石이 지은 〈李退溪小傳〉이 성균관대학의 丁範鎭교수와 대만학자 陳祝三교수의 공역으로 국립대만사범대학내의 「退溪學硏究會」에서 간행되었다. 한편 臺灣(香港)측에서는 巨儒 錢穆이 내한하여 경북대학교에서 기념강연을 하는 한편 陶山書院을 참배하였으며 귀국한 뒤로 〈退溪全書〉를 탐독하고 쓴 논문인 〈朱子學의 韓國傳播考〉가 〈退溪學報〉95.6.11.13호에 4회 연재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전목은 퇴계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내한한 孔德成(孔子 75代孫 衍聖公·中國考試院長)이 陶山書院院長으로 行公함으로써 韓臺間的 퇴계학 교류의 단서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또 李家源, 李東俊 諸氏가 대만을 방문하여 〈孔孟學會〉의 陳立夫와 교류하면서 대만 학술사상계의 3원로인 錢穆·孔德成·陳立夫와 퇴계학 연구원 측과의 유대는 일층 긴밀해졌던 것이다. 1979년 11월 11-14일 대만사범대학 주최로 제7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대만에서 「退溪學會」가 결성되었으니 〈이퇴계 연구회〉(周何)이고, 1987년에 국제퇴계학회 담장지부(명예회장: 張健邦, 상임이사 겸 이사장: 王甦)⁶⁰⁾가 있다. 지금까지 퇴계학 논문 집필자는 錢穆(1), 蔡茂松(3), 董金裕(5), 周何(7), 王甦(10) 등 약 40여 명 정도이고 대만 국내외 발표된 논문은 총 80여 편쯤 된다.

(3) 中國

퇴계학은 퇴계선생이 서거하기 1년 전인 69세 때 이미 제자 서애 유성룡

60) 丁淳睦,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硏究」, 『韓國의 哲學』19,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1, pp 3-7 참조

을 통하여 중국 학자들에게 소개되었다. 『西厓年譜』에 의하면 그가 28세(1769)때 聖節使 書狀官 겸 司憲府 監察의 직책으로 북경에 가서 대궐에 들어갈 때 宣治門 안에 수백 명의 태학 유생들이 모여 들므로 이들에게 당시 중국에서 누구를 도학의 宗主로 삼는지를 물었다. 이때 이들이 王陽明과 陳白沙라고 하므로, 西厓가 陳白沙는 道를 정밀하게 보지 못하고 왕양명의 학문은 오로지 禪學에서 나온 것이므로 자신의 생각에는 薛文清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新安 사람 吳京이 당시 중국의 학문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학자들이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태학생들의 대답이 그러하네. 西厓가 “정당한 이론으로 배척하였으니 이단을 배척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인정하고 못내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 뒤 오경이 사신들의 숙소였던 玉河館으로 西厓를 찾아와서 은근한 뜻을 표함으로 서애가 퇴계의 『聖學十圖』를 보여주었더니 돌아올 때 오경이 편지를 겸한 시를 지어 주었다. 오경은 또 부채에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는 형상을 그리고 八分書體로 “關山別意”란 네 글자를 써서 주었는데 西厓는 그 운자를 달아 답을 했다고 한다. 西厓가 『聖學十圖』를 오경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였는지 아니면 오경에게 보여주고 기증하였는지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聖學十圖』를 분명히 도로 갖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때 그것이 중국에 전해졌음은 확실하다.⁶¹⁾ 이 사실은 역시 퇴계의 문인인 艮齋 李德弘이 쓴 「退溪先生墓誌敍」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西厓가 중국에 퇴계의 『聖學十圖』를 소개하고 홍천민이 남경에서 그 전파를 확인한 이후 청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내에서 퇴계학이 계승되었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없다.⁶²⁾

61) 李德弘, 「退溪先生墓誌敍」, 『退溪先生文集』.

62) 신귀현. 전개서, pp.15-17 참조.

1984년 9월 9-11일 Hamburg 大에서 개최된 제7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 중국 인민대학 張立文이 단신 참가하여 「朱熹與李滉的易學思想比較研究」⁶³⁾를 발표한 것을 시발로 하여 제8차 대회에도 辛冠潔, 張立文, 蒙培元, 陳來, 徐遠和 등 20여명과 조선족 학자 崔龍水, 李洪淳 등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에도 홍콩 中文大學(9차, 17명), 서울 정문연대회(10차, 8명)에서도 다수 학자가 참여하였다. 1989년 제11차 대회는 북경 인민대학에서 개최됨으로써 퇴계학의 사상적인 연원지에서 張岱年을 비롯하여 18명의 학자들이 퇴계학 논문을 발표하였다. 199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는 辛冠潔⁶⁴⁾을 비롯하여 張立文, 蔡培元, 樓宇烈이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조선 측 학자 이홍순, 黃有福 등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1993년 독일 게팅겐대학에서 열린 제13차 국제대회에서는 陳來⁶⁵⁾, 崔龍水, 張立文, 謝寶森⁶⁶⁾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 1995년 11월 중국 북경대학에서 개최된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중국의 학자 7명이 참가하여 1명의 기조연설에 이어 6명의 개별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언론도 퇴계학에 관심을 보였다. 1985년 8월 일본 쓰구바 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던 李作祥교수가(논문 발표는 없었음) 復建日報에 회의 참가 소감을 발표하였던 것을 1986년 3월 2일자 人民日報가 해외 판에 다시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이퇴계는 ‘海東朱子’란 칭위를 얻고 있으며 .. (중략) 본인도 주자학의 계

63) 張立文, 「朱熹與李滉的易學思想比較研究」, 『退溪學報』43, 退溪學研究院 1984 참조

64) 辛冠潔, 「再論退溪心學」, 『退溪學報』43, 退溪學研究院, 1984 참조.

65) 陳來, 「退溪心學的再研究」, 『退溪學報』70, 退溪學研究院 1991 참조

66) 謝寶森, 「李退溪 應變의 道」, 『退溪學報』75·76合集, 退溪學研究院 1992 참조

송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범주와 술어, 예를 들면 태극, 천도, 인욕, 체용, 동정, 지행 등을 그대로 沿用하여 그의 철학 체계를 구성하고 表述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사상사적 관점에서 퇴계학의 동방문화에 있어서의 위치와 아울러 서방 현대사상의 진행을 비교함으로써 동방문화 가운데 서방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퇴계학 연구는 연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거듭되고 있다. 이퇴계와 같은 이러한 주자학자는 국내의 중국 철학사를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모르고 있으며, 역대로부터 건국 후 수십 년 동안에 이퇴계의 저작이 출판되거나 학자들이 그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를 撰寫한 것도 없는 듯하다. 근래 몇 년 동안 형세가 바뀌어 어떤 대학의 조선 문제에 관한 연구 기구에서 찬사한 논저 중에는 항상 이퇴계를 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본 쓰구바대학에서 소개된 제8기 국제 퇴계학술회의에는 중국대륙의 학자가 열 명이 넘게 참가하여 열 편이 넘는 논문을 撰寫하여 퇴계학의 각 방면을 밝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퇴계학과 주자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비교적 과학적으로 퇴계학의 연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⁶⁷⁾

또한 1987년에는 절강성사회과학원에서 간행된 〈절강학간〉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황(1501-1570)의 호는 퇴계이다. 16세기 조선 理學의 大師로 평생을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여 주자학을 집대성했다. 그의 저작과 사상은 당시뿐만 아니라 후세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東方文化史上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근년에 동·서방 각 국에서의 퇴계학 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하여 1985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쓰구바 대학 주최로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는 10여국과 지역에서 200 여명이라는 많은 학자가 참석했었다. 중국 대륙과 대만의 학자들도 30여명이나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양쪽 중국학자들이 근년에 이룬 宋明理學과 퇴계학에 대한 새로운 성과를 반영, 각국 학자들로부터 중시와 호평을 받았다. 본지는 특별히 ‘퇴계학 연구’ 난을 만들어 우선 발표 논문 중 6편을 실어 독자에게 봉사하고자 한다.”⁶⁸⁾

67) 김용장 편, 「퇴계학계소식」 No 20, 퇴계학연구원, 1986, p.2-3 참조.

라고 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최근 길림대에 퇴계연구소가 개설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중국학자로서 국제퇴계학회에 4편 이상 논문을 쓴 사람으로는 張立文(12)⁶⁹⁾, 徐遠和(6), 蒙培元(5), 辛冠潔(4), 謝寶森(4), 楊憲邦(4), 李洪淳(4), 李錦銓(4), 李甦平(4) 등이고 중국 학자가 쓴 논문이 120여 편인데, 국제퇴계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만 110여⁷⁰⁾ 편이다.

(4) 홍콩

홍콩에 퇴계학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제9차 퇴계학 국제학술 회의를 개최한 데서 시작된다. 이 회의에서 한국 13명, 중국 11명, 일본 8명, 대만 9명, 미국 4명, 서독 2명, 호주 1명, 홍콩 2명 총 50명에 달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했다. 다만 주최지인 홍콩에서 2명만 발표한 것은 퇴계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학회를 개최한 이후 1987년에 홍콩에서는 국제 퇴계학회 홍콩지부(회장:李棧, 부회장:元廷焯)를 결성하였다. 지금까지 홍콩 출신의 퇴계관계 학자로는 모두 4명이며, 국제퇴계학회 지부장 元廷焯 교수만이 국제퇴계학회에 3회 참석하였다.

(5) 歐美諸國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퇴계에 관해서는 물론 한국의 유교사상 자체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그 이전에도 서양에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이 학위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유교사상을 간헐적으로 언급해 왔지

68) 김용장 편, 「퇴계학계소식」, No 29, 퇴계학연구원, 1986

69) 괄호 안의 숫자는 논문 편 수를 뜻함

70) 丁淳睦, 앞의 論文

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유교를 「봉건적 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2년 미국 Temple 大에서 율곡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Yu Chin-Sei의 논문이 아마도 한국 유교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문이라 여겨진다. 1976년에 Zaborowski라는 소련인이 Frankfrut大學에서 목은 이색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1977년에는 Michael C.Kalton이 하바드 대학에서 조선조 성리학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것을 영문으로 번역출판 하여 퇴계의 저서를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공로로 '퇴계학술상'을 받았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퇴계학연구의 국제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1990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13차 대회 때까지 서양학자들이 참가하여 발표한 논문들이 총 80여 편이나 되고 2003년 서울서 발표한 것까지 국제퇴계학회에서 퇴계학을 정면으로 다룬 논문만도 100여 편에 이른다. 이들 서양학자들을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이 41편, 러시아가 21편, 독일이 11편, 에스토니아 2편, 폴란드 3편, 호주 4편, 프랑스, 이태리, 유고, 스위스, 체코, 네덜란드 등이 각각 한 편씩이며, 이들 중 「퇴계학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2회 이상 논문을 발표한 학자도 14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 들 중에는 6명의 한국계 학자와 5명의 중국계 학자도 포함되어 있는데⁷¹⁾ 특히 중국계 학자들은 주자학에 정통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⁷²⁾

현재까지 국제퇴계학회에서 개최한 국제퇴계학술대회의 개요와 퇴계학 연구기관 및 연구회 현황, 그리고 국제퇴계학회의 각 지역 지부설립 현황을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71) 宋彙七, 「歐美諸國에서의 退溪學 研究動向과 그 成果」, 『韓國의 哲學』19,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1 참조.

72) 金光淳, 「退溪學의 研究現況과 現代的 意味」, 『동방한문학』 12, 동방한문학회, 1996년에서 인용 보완하였음을 밝혀 둔다

< 퇴계학 국제 학술 대회 개요 >

수	연 도	주최국 가최지	참가국수(국명)	발표 논문	주 제
1	1976 5 18-20	한국,대구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3(한,대,일)	7	퇴계사상연구
2	1977 5 27-31	일본,동경이퇴계연구회 동경대학교	4(한,대,일,미)	18	근세 동아시아 있어서의 주자학 과 이퇴계
3	1978 8 20-23	한국,(사)토계학연구원	4(한,대,일,미)	29	근세 유학사상과 이퇴계
4	1979 11 11-14	대만,국립대만사범대학, (사)퇴계학연구원	4(한,대,일,미)	29	근세 유학과 퇴계학
480 기념	1980 9 26-28	한국 성균관대,다동문 학연구원,서종문화회관	5(한,대,일,미,화)	5/26	주자학과 한국유학
5	1981 11 22-27	한국 (사)퇴계학연구원	5(한,일,중,미,네데란드)	31	퇴계선생탄신480주년기념 - 퇴계학과 그 계승 발전-
6	1983 10 10-13	미국, 보스톤,하버드대학교	6(한,대,일,미,소,서)	18	퇴계학과 신유학
7	1984 9 9-11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7(한,대,일,미,화,독,중공)	21	한국철학-중앙철학에 있어서의 퇴계학과 신유학, 그 영향
8	1985 8 27-29	일본,이퇴계연구회 쓰쿠바대학	11(한,대,일,미,화,독, 중공,폴,호,체코,폴란드)	49	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동아세 아사상 문화의 역사적 전개 및 세계사상사적 관점에서의 퇴계 학의 위치
9	1987 1 24-26	홍콩,(사)국제퇴계학회 香港中文大學	7(한,대,일,중공,독,호, 홍공)	46	신유학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서 지역적 전개와 비교 부제 이퇴계 철학의 현대적 의의
10	1988 9 15-16	한국,(사)국제퇴계학회, 일본국제퇴계학회,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한,대,일,중공,미,호, 소,독,유고,폴란드)	54	퇴계학 그 회고와 전망
11	1989 10 4-6	중국,(사)국제퇴계학회, 중국인민대학	7(한,대,일,미,중공,소, 홍공)	51	유학에 있어서 퇴계학의 지위
12	1990 8 27-28	소련,(사)국제퇴계학회 소련사회과학원극동연 구소	6(한,대,일,미,중공,소)	47	현대세계와 유학 그리고 퇴계학
13	1992 8 24-27	독일,(사)국제퇴계학회, 피팅겐대학교	7(한,대,일,미,중,소,독)	31	퇴계학에 있어서 자연관과 인간관
14	1995 10 29-11 2	중국,(사)국제퇴계학회 북경대학교	4(한,중,일,대)	21	유학, 퇴계학과 미래사회
15	1998 11 25-26	한국 (사)국제퇴계학회 안동대학동아일보사	4(한,중,일,미)	15	21세기에 있어서 유교와 퇴계학

16	2000 6.15-19	중국,(사)국제퇴계학회, 길림대학교	3(한,중,일)	17	21세기에 있어서 유학, 퇴계학의 위상과 역할
17	2001 10.15-17	한국,(사)국제퇴계학회, 중앙일보사	5(한,중,일,독,미)	26	퇴계의 삶과 철학, 그리고 세계 와 미래(퇴계 탄신500주년기념)
탄신 500 주년	2001 10.12-13	한국,경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	4(한,일,중,미)	22	퇴계와 함께, 미래를 향해
18	2003 10.16-18	한국,(사)국제퇴계학회	5(한,중,일,미,대)	13	세계화시대 퇴계 심학의 의의와 그 전망
총 15개 국 (동양 5, 구미 10)		576			

〈 퇴계학 연구 기관과 연구회 현황 〉

	설치연도	연구기관명	소속기관	비 고
연구기관	1970	퇴계학연구원	사단법인	민간기관으로 출발 78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 이 사장 . 이등준
	1973	퇴계연구소	경북대학교	
	1982	부산퇴계학연구원	사단법인	연구회로 출발 1990년 사단법인 연구원 승격
	1984	퇴계학연구부	하버드대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에 소속
	1996	퇴계연구소	단국대학교	
	1998	퇴계학연구소	안동대학교	
연구회	1972	이퇴계연구원	동경	이사장 . 八本信雄 회장 : 宇野哲人 부회장 이부길음, 宇野精一
	1979	이퇴계연구원	대만	고문 8, 이사21, 상임위원 周何, 나중수, 黃錦鏞 등 5명
	1982	이퇴계연구원	熊本	회장 宇枝龍太郎 부회장 眞木直孝
	1982	이퇴계연구원	千葉	회장 : 高橋進 이사장 松戸光夫
	1982	퇴계학보협회	서울	회장 . 배중호, 부회장 안병주 전두하
	1983	퇴계학보협회	워싱턴	회장 : 강호석, 이사장 : 강경구
	1983	퇴계학보협회	뉴욕	회장 어수일, 부회장 심상초
	1984	퇴계학보협회	하와이	회장 최영호, 이사장 . 고승균
	1984	퇴계학보협회	독일	회장 . 구기성
	기관6, 연구회9			5개국

〈 국제퇴계학회 지부 설립 현황 〉

국가	연도	명칭	임원
한국	1986	국제퇴계학회 한국 지부	고문 신현확, 유승국, 백난준, 정비석 회장 장충식 이사장 이동준
	1986	강원지부	지부장 서용화, 고문 김진배
	1986	충청지부	지부장 김태영, 고문 조건상
	1986	경남지부	지부장 여중동
	1986	대구·경북 지부	지부장 정순목, 이사장 이동훈
미국	1987	하와이 지부	지부장 최영호, 이사장 고승재
	1987	워싱턴 지부	지부장 강호석
	1987	뉴욕 지부	지부장 박성배 이사장 심의학
		로스앤젤레스	
		보스톤	
일본	1987	동경·千葉지부	회장 高橋亨
		熊本지부	
		九州	현회장 戸田啓佑
독일	1987	본(Bonn) 지부	회장 슈미트, 사무총장 구기성
	1987	함부르크 지부	회장 슈툼펠트
대만	1987	담강 지부	명예회장 張健邦, 상임이사 겸 이사장 왕소
홍콩	1987	홍콩 지부	회장 李校, 부회장 阮廷煒

3. 退溪의 處世觀

1) 存養省察과 繼往開來

퇴계의 처세관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일상 생활속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 퇴계는 평생 남의 스승으로 자처한 바 없고, 제자를 대하기를 마치 朋友를 대하듯이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참스승이 될 수 있었다. 그는 實存的 「만남」에서 스승은 스승임에 그치고, 제자는 제자임에 그칠 때 사제간의 「만남」은 가능하다⁷³⁾고 하였다. 퇴계에 의하면 社會教化가 국가교육의 기반이 된다. 가정교육과 鄉黨教育은 도덕적

양심의 각성과 사람됨의 큰 근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法制는 비록 폐할 수 있더라도 彝倫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제도는 道の 규범의 근원이며 학생은 그 원천이고 추진세력이기 때문에 국가가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은 道の 규범의 확립과 사기의 振作에 있다는 것이다. 사제관계는 禮와 義를 앞세워야 하며 학우간의 일상생활 역시 禮와 義를 통한 切磋琢磨가 있어야 한다⁷⁴⁾는 것이다.

퇴계의 가정교육은 謙謹으로 요약된다. 퇴계는 효가 모든 행실의 근원이라는 전통윤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善養에 있고 祿養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예의가 아닌 것으로는 효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조상 제사 역시 誠敬을 주로 하여야 하며 祭需를 풍성히 차리는 데 있지 않다⁷⁵⁾고 하였다.

국가에 대한 봉사 또한 의가 아니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벼슬 살이는 학문이 성숙된 다음에 하라⁷⁶⁾고 하였다. 이는 師友間에는 넓게 견문을 나누어서 주관성을 극복하여야 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⁷⁷⁾는 것이다.

또한 퇴계의 敬說은 고답한 이론이 아니라 평이한 일상의 실천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단적으로 敬이란 衣冠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⁷⁸⁾고 하였다.⁷⁹⁾ 퇴계는 敬을 주로 삼고⁸⁰⁾ 그것을 근본으로 하였다.⁸¹⁾ 퇴계는 敬을 인식 실현의 지도이념으로

73) 丁淳睦, 『退溪正傳』, 國際退溪學會慶尙北道支部, 1990, p 24 참조

74) 丁淳睦, 「退溪의 教育觀」, 『退溪의 教育哲學』, 1986, pp.263-281 참조

75) 丁淳睦, 앞의 책, 「人間 關係論」 참조

76) 丁淳睦, 앞의 책, 「價値教育論」, p.25 참조.

77)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論語, 述而 21)

78)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書經集註, 序)

79) 丁淳睦, 앞의 책, 「退溪의 教育思想論」, p.27 참조.

80) 敬而爲主(『退溪全書』上, 戊辰六條疏).

삼았을 뿐 아니라 교학정신의 중심개념으로 하였다. 그에 의하면 敬은 도덕적 자아의 구현을 위한 통일개념이기도 하였다. 敬에 대한 이해는 知行互進說의 인식론적 방법이나 存養省察說에 있어서의 가치론적 탐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퇴계학의 교학정신은 眞如·力行이 서로 나아가며 居敬窮理와 存養省察이合一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敬은 이들 모든 방법들을 한데 묶는 통일개념·중심개념으로 한다. 퇴계학은 교육인간학이다. 그는 스스로 도덕 인격을 구현하는 길, 즉 敎學의 근본이념을 敬에서 찾으려고 했다. 물론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한 수양법으로서 敬을 강조한 사람은 퇴계 이외도 수없이 많다. 성리학 자체가 하나의 敬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성리학자들은 한결같이 敬을 논하였으며 이를 말하였다. 程·朱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居敬窮理를 다루는 모든 유학자들은 일찍이 敬으로써 存養省察하였다. 고대 유학에 있어서 공자 또한 敬을 수양법으로 삼았다.⁸²⁾ 마음(天君)⁸³⁾이 발동하는 바를 성실하게 하면 만 가지 거짓이 소멸되고 인체의 모든 기관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의리의 판단을 정일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敬의 발원점과 종착점은 한결같이 存養省察에 있다. 언제나 整齊靜一·整齊嚴肅·主一無敵한 정신의 각성상태(常惺惺)를 지니고(持敬) 있어야 한다. 퇴계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삶속에서 持敬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인격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조석으로 한결같이 나날이 계속하고 氣가 청명할 때에 이를 細繹玩味하고 평상시에 체험하고 복돋우라⁸⁴⁾고 하였다.

퇴계의 4대 교육방법은 「忠信·篤實·謙虛·恭遜」이다. 그는 參古酌

81) 敬而爲本(『退溪全書』上, 「戊辰六條疏」).

82) 宇野哲人, 『中國哲學史概論』, 金の里社, 1926 참조.

83)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心即天君(『荀子』, 「天論」)

84) 『退溪全書』上, 「聖學十圖 筭」

속하라고 하였으므로 時宜 또한 강조하였으니 옛 것을 참고하여 오늘의 것을 참작하라는 데서 그의 미래 지향적이며 현대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유학의 본령은 전통의 계승과 개혁의 조화에 있다. 많은 先儒들은 繼往은 성공했으나 開來는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과거를 잇는 繼往은 성공했으나 開來는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 말에서도 그의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을 아울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미래 지향적인 처세관을 찾아볼 수 있다.

퇴계는 사람됨을 기르는 스승의 길(人師之道)과 단순한 지식의 전달사(經師之路)는 다르다고 했다. 그가 程子の 門人 尹彥明이 程門에서 반년 동안 수학할 때 배운 글은 고작 『大學』이나 『西銘』의 한 두 章에 불과했다.⁸⁵⁾ 퇴계 교실 역시 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격교육의 장이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門人들의 많은 述懷 가운데 權好文과 柳應龍의 대화는 플라톤의 『향연』과 같은 감동⁸⁶⁾을 준다. 퇴계는 禮說을 중심으로 開來하면서 균형 있는 견해를 지녔다. 교육은 미래를 현재에 실현하는 작업이고 과거의 전통을 현재의 문화로 편입시키는 일이다. 이처럼 퇴계의 교육관은 敬으로 存養省察하고 參古酌今하여 繼往開來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양면을 아울러 제시한 그의 처세관을 읽을 수 있다.

2) 經濟倫理와 勤儉節約

주자는 현실의 대응 치료책으로 土地分配論, 賦稅論, 井田論 등을 다수 발표하여 善政說을 발표하였으나⁸⁷⁾ 퇴계는 民生可憐⁸⁸⁾의 심정에서

85) 『退溪全書』上, 聖學十圖.

86) 丁淳睦, 앞의 책, 「教育方法論」, pp 28-29 참조

87) 朱子書節要

國本을 튼튼히 하지는 仁政說을 주장하였다. 주자가 학자이면서 정치가적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면, 퇴계는 학자이면서 교육자적 성향이 짙다.⁸⁹⁾ 그리고 주자에게는 경제사상에 대한 탁월한 견해가 있는 반면에, 퇴계에게는 경제윤리가 관심사였다. 퇴계는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도덕규범에 맞게 행하고자 하였으며 경제생활 역시 仁義의 도덕 가치를 지향하여야 한다⁹⁰⁾고 하였다.公私가 분명한 태도, 물건을 주고받을 때의 예의범절, 규모 있고 알뜰한 집안 살림살이, 豐形과 時候에 대한 예리한 판단, 노비의 관리, 그리고 外地田畝에 대한 收租 등에 이르기 까지 그는 유능하고 치밀한 재산 관리장의 면모가 있었다.⁹¹⁾ 이러한 경제행위가 도덕적 表率이 된 것은 몸소 仁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몸소 義로써 실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는 仁義에 맞는 일이면 생산의 발전이나 財富의 증식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인륜도덕과 和譜하는 범위 안에서 수용된다. 그는 정당한 生財之道는 인정하였으나, 타인의 이익을 침탈하거나 分外의 取物이나 분수와 절제를 벗어난 사치와 소비는 엄금하리⁹²⁾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財寶가 귀하거나 천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 가치 여하에 달려 있다⁹³⁾는 것이다. 그는 임종 때 사치품이나 분수에 어긋난다고 하여 油蜜菓를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는 아들 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반드시 禮葬을 하려 할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유언이라 말하고 굳이 사양할 것을 陳言토록 하라”고 하였고, “墓에 碑碣을 세우지 말고 다만 조그마한 돌에다가 ‘退陶晚隱眞城李公

88) 寄安道孫 此處大旱焦土 民生可憐(『陶山全書』四, 丙集).

89) 丁淳睦, 『退溪正傳』, p 20 참조

90) 『陶山全書』, 「家書」.

91) 『陶山全書』, 「家書」.

92) 『陶山全書』, 「家書」.

93) 人有德則物貴 無德則賤(尙書, 周書).

之墓'라고 쓸 것이며 지어놓은 '自製銘文'을 그 뒤에 새기게⁹⁴⁾ 하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운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千字文을 손수 베껴 보내면서 "좋은 종이가 없어서 창호지에 써 보내니 해지지 않을까 모르겠다.⁹⁵⁾"고 하였을 정도로 勤儉 節約하였다. 당시 그는 한양에서 正二品의 高官이었는데도 그렇게 했으니⁹⁶⁾ 그의 근검절약하는 처세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示唆하는 바 크다. 또 그는 국가 경제가 곤핍된 이유로 중국사신에 대한 과도한 접대비, 거창한 왕릉의 役事, 酷吏와 暴胥들의 횡포 등을 들었다.⁹⁷⁾ 이처럼 위정자들의 근검절약과 관리들의 善治를 당부한 그의 처세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위정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퇴계의 勤儉節約의 경제윤리는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는데 근간이 되었다⁹⁸⁾고 한다. 따라서 퇴계의 처세관은 오늘날의 위정자는 물론, 우리 모두의 경제윤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勤儉節約의 경제윤리가 우리 국민의 경제윤리에 접목될 때 비로소 우리 경제도 튼튼한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政治要諦와 與民同樂

퇴계가 도산서원에 머물고 있을 때 영의정 權轍 대감이 퇴계를 뵈겠다고 한양에서 550리 길을 거쳐 안동에 이르러 다시 도산까지 70리 길을 찾아

94) 金光淳, 『退溪先生』5, 국제퇴계학회 대구경북지부, 2002, pp.151-158 참조.

95) 阿滕始知學文子云 深喜千文隨當書送 但無好紙 恐易破矣(『陶山全書 內集』, 「寄篤」)

96) 丁淳睦, 앞의 책, pp.20-24 참조.

97) 『退溪全書』, 「戊辰經筵啓劄」.

98) 松田甲, 앞의 책, p.509 참조.

왔다. 그는 官階를 초월하고 대학자인 퇴계를 친히 방문한 것이다. 그런데 저녁때가 되어 밥상이 나왔는데 퇴계가 평소 먹던 보리밥과 콩나물 반찬, 구하기 힘든 북어 반찬으로 권철 대감을 접대했다. 그런데도 그는 밥을 먹는 듯하다가 밥숟갈을 놓고 마는 것이었다. 이를 본 퇴계는 조금도 다른 접대를 하려들지 않았다. 참다못한 권철 대감은 이튿날 도산서원을 떠나려 했다. 떠나면서 권철은 퇴계에게 만났던 기념으로 한 가지 箴言을 청했다. 이에 퇴계는 몇 번 사양하다가 의관을 정제하여 대감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감께서 陋地를 찾아 오셨는데 제가 융숭한 대접을 못해 드려 송구하옵니
다 그러나 대감 전에 올린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비하면 더할 나
위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저들이 먹는 음식은 콩보리밥과 된장찌개가 고작입니
다 그럼에도 대감께서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잡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장래가 근근히 걱정이 되옵니다. 무릇 정치의 要諦는 與民同樂에 있사
온데, 官과 民의 생활이 이처럼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백성이 官의 행정에 心
悅誠服하겠나이까?”⁹⁹⁾ 라고 하였다

권철에게는 등골이 오싹하도록 폐부를 찌르는 忠言이요 直諫이었다. 일
개 사숙의 훈장인 퇴계가 영의정 권철에게 훈계한 무서운 충고였다. 이는
퇴계의 진실하고도 솔직한 마음과 용기의 결실이며 국가 장래를 위한 올바
른 충고였다. 民이 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이며 官이 民을 다
스리는 방법의 要諦를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보여준 箴言이요
秋霜烈日과 같은 俊嚴한 教訓이었다.¹⁰⁰⁾ 이처럼 퇴계의 言動은 그가 주
장해온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知行并進의 처세관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정자는 물론, 지도층에 있는 모두가 한번쯤 귀

99) 鄭飛石, 『退溪小傳』, 國際退溪學會慶北支部, 1988. pp 110-113 참조

100) 金光淳, 앞의 책, pp 111-114 참조

기울려야 할 것이다.

퇴계가 단양군수로 있을 때 東軒에 앉아 행정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몸소 어려운 백성을 직접 만나보고 듣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한 與民同樂의 飢民救濟는 끝내 그들을 감복케 했다. 이렇게 군민을 직접 만나 독려함으로써 民과 官이 하나가 되면서 정신적인 힘을 발휘하여 고난을 극복하였다. 마침내 復道沼라는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을 극복하려는 방법의 제시¹⁰¹⁾는 당시 牧民官으로서 후세 위정자들의 처세에 기리 남을 귀감이 되었다. 기민을 구제하려고 각 촌락을 몸소 찾아다니던 광경을 「丹陽山水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정 무신년 봄 내가 처음 수령으로 내려가 보니 마침 그해도 흉년이 들어公私는 困急하고 질병과 우환이 심하여 흉년을 다스리는 일 외는 마음이 어지러워 문을 닫고 지낼 뿐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산수에 노니는 일조차 여의치 못하였다. 飢民을 구제하려고 산골 사이로 왕래하다가 한두 군데를 얻어 보았을 뿐이다”¹⁰²⁾라고 하였다. 이때 그가 만들었던 復道沼는 동양 최초의 저수지이며, 한국 저수지의 嚆矢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단양천을 따라 가면 羽化橋 밑에 復道沼를 기념하기 위해 큰 바위에 復道別業이란 네 글자를 새겼으니 지금도 전하고 있다. 이 復道沼의 구상은 오늘날 다목적 댐을 만드는 사고에 앞질러 이룩한 거사이며 기발한 발상이었다.¹⁰³⁾

퇴계는 1548년 10월에 단양군수를 그만 두게 되었다. 넷째 형 溫溪公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해 왔기 때문이다. 형제간에 上下官으로 있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양의 군민과 선비들이 찾아와 머물러 줄 것을 호소했으나 듣지 않았다. 떠날 때 퇴계의 짐은 입던 옷과 두어 켤

101) 鄭飛石, 앞의 책, pp.55-56 참조.

102) 『退溪先生文集』, 「丹陽山水記」.

103) 鄭飛石, 앞의 책, pp.57-60 참조.

金光淳, 앞의 책, pp.70-74 참조.

짜의 책, 손수 주워 모은 壽石 두 개 뿐이어서 조랑말 한 마리에 다 실을 수 있었다. 백성들이 선물을 가져 왔으나 그는 마음만 받았을 뿐 물건은 모두 돌려주었다. 퇴계의 행차가 죽령에 이르렀을 때 관졸들이 삼단을 지고 따라 왔다. “이 삼단은 관아의 밭에서 난 것이니 부디 받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퇴계는 “내가 사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고 하면서, 이것은 관아의 물건인데 어찌 사사로이 쓰겠는가? 도로 가져가서 다음 사또가 饑民救濟에 쓰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그 말에 관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¹⁰⁴⁾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정치의 要諦는 輿民同樂 곧 백성과 더불어 同苦同樂해야 한다는 그의 처세관은 오늘날의 우리 위정자들에게 보옥 같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修己治人과 知行並進

퇴계가 戊午辭職疏를 올리고 물러간 후 명종은 퇴계가 그리워 불러올려고 하였다. 벼슬에 뜻이 없는 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 전교를 내릴 때마다 상소를 올려 거두어 주기를 바랐다. 명종은 할 수 없이 퇴계를 도산에 머물도록 윤허했다.¹⁰⁵⁾

1566년 7월에 명종은 유신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글제를 내렸다. “현인을 부르나 오지 않는 것을 한탄하노라.(招賢不至歎)”라고 하니 명종의 마음을 알고 유신들이 근체서를 한 수씩 지어 올렸다. 그래도 명종은 마음이 차지 않자 명령을 내렸다.

“내가 도산에 직접 갈 수 없으니 화가를 보내어 예안으로 내려가 도산의

104) 『退溪先生文集』, 「陶山雜詠」,
鄭飛石, 앞의 책, pp50-56 참조
金光淳, 앞의 책, pp 72-75 참조.

105) 『退溪先生文集』, 「戊午辭職疏」

경치를 그려오라”고 하였다. 명종은 礪成君과 증종의 사위인 宋寅으로 하여금 화가가 그려온 그림 위에 퇴계의 「陶山記」와 「陶山雜詠」을 쓰게 하여 그것으로 병풍을 만들어 자신이 거처하는 방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바라보곤 했다¹⁰⁶⁾고 한다. 여기서 보면 명종이 퇴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은 퇴계는 몹시 놀라 준에게 편지를 썼다. “이는 두렵고 해괴한 일이다. 더구나 安道(퇴계의 말손자)가 이 일에 동참했다니 한스럽기 그지없구나!” 라고 하였으니, 퇴계의 겸양지덕은 이와 같았다.¹⁰⁷⁾ 이는 오늘날의 위정자, 특히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왕에게 이와 같은 신심을 받고 있는 퇴계였지만 스스로의 자만심보다 도리어 修己治人에 더욱 관심을 가진 퇴계의 처세관은 위정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퇴계에게는 박색에다 좀 부족한 부인이 있었다¹⁰⁸⁾고 한다. 그는 제 사상에 음복도 하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가 하면, 도포를 입을 때 빨간 형 쪼리로 기웠다는 등 많은 일화가 있다. 그러나 퇴계는 그의 부인을 한 번도 비웃거나 박대한 적이 없었다¹⁰⁹⁾고 한다. 퇴계가 27세에 喪妻를 하고 30세에 재취한 부인으로 당대의 문신으로 예안에 귀양 온 權磻의 딸이다. 權磻의 부친인 花山 權柱는 벼슬이 參判까지 올랐고 연산군 때 甲子士禍에 연루되어 평해로 유배되었다. 그 후 權柱를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사약까지 내려 보냈다. 權磻의 모친인 이씨 부인은 남편에게 사약이 내려졌다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權磻 또한 거제도도 유배 되었고, 증종이 즉위한 후 權磻은 귀양지에서 풀려나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자손을 등용하

106) 김광순, 앞의 책, pp.136-138 참조.

107) 김광순, 앞의 책, pp.138-139 참조.

108) 김광순, 앞의 책, pp.29-30 참조.

109) 김광순, 앞의 책, pp.29-30 참조.

는 대우를 받아 서울로 돌아왔으며, 빼앗긴 집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해에 權碩은 딸을 낳았다. 그러나 辛巳誣獄 때 權碩은 다시 큰 화를 당했다. 權碩의 동생 權銓은 己卯士禍 때 귀양을 갔다가 형장에서 매를 맞아 죽고 말았다. 권전의 부인은 역적의 아내라 하여 종으로 끌려갔고, 權碩 또한 예안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權碩의 어린 딸은 아버지가 귀양 가고 숙부가 비참하게 죽고 숙모가 끌려가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는 너무 놀라 그만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다. 권질은 정신이 혼미해진 딸을 몹시 가엽게 여겼다. 어떻게든 좋은 자리를 잡아 혼인을 시키고 싶었지만 역적무고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 데에 정신까지 이상한 처녀를 맞아들일 집안이 없었다. 權碩의 딸은 몸은 처녀이지만 머릿속은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퇴계는 평소 권주, 권질, 권전 부자의 학문과 氣概가 현량함을 흠모하고 있었으므로 권씨 양대가 입은 재난을 몹시 안타깝게 여겼다. 퇴계는 간혹 권질을 찾아뵙고 문안드리곤 하였다.

권질은 퇴계에게 “자네는 喪妻를 하고 난후 續絃을 하였는가?”라고 물었다. 퇴계는 권질의 질문을 받고는 좀 전에 정신이 이상한 딸로 하여금 상을 들고 방에 들어온 연유를 알았다. 퇴계는 조용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자. 권질이 “자네는 내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내 여식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네. 그러니 누가 데리고 가겠는가? 내가 오늘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여식을 데려가 달라는 것일세.”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퇴계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하지만 파님을 맡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慈親께 아뢰어 승낙을 받고 곧 혼인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권씨 집으로 장가를 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정에 입고 갈 도포를 퇴계 부인은 빨간 형겁으로 집었다거나, 제사에 쓸 음식을 집어 먹었다는 등 여러 일화가 전하기도 한

다. 제 삼자의 입장에서는 웃음거리일지도 모르지만은 당사자인 퇴계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한 번도 그 부인을 박대한 적이 없고, 실수를 저질러 집안 사람이 비웃을 때도 늘 부인을 감싸주곤 했다.¹¹⁰⁾ 퇴계는 ‘貧賤之交不可忘이요 糟糠之妻不下堂이라.’¹¹¹⁾’는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퇴계의 제자 중에 완주 태생 李咸亨이란 선비가 있었다. 부인과 금슬이 좋지 않아 한 번도 동침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퇴계는 알면서도 부부 관계를 꾸짖지 않았다. 어느 날 이함형이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함에, “자네 고향에 다녀오겠다니 내일 조반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떠나게”라고 하니, 이함형은 공손히 “네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 날 아침이 되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침상을 보니 가지나무와 산나물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모님의 인품이었다. 예의범절을 전혀 모르는 천치 같은 여인이었다. ‘아무리 성인 같으신 선생님이라도 저처럼 못난 마누라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싶었다. 이함형은 불현듯 고향의 마누라를 떠올렸다. 고향에 있는 마누라는 사모님과 견주어 생김새도 월등하러니와 예의범절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으며 선생님도 저처럼 못난 마누라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마누라를 소박하다니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길을 떠나려 하자, 퇴계가 편지를 주고 편지 피봉에는 ‘路次勿開看’(길가면서 열어 보지 말라)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함형이 집에 도착하자 편지부터 뜯어보았다.

“그대가 마누라와 금슬이 안 좋다하니 이는 진실로 개탄해 마지않는 일이다. ‘糟糠之妻는 不下堂’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대는 부부의 근본 도리를 여기고서 야 글을 배워 무엇 하겠는가?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인데 그대는 나의 말을 잘

110) 金光淳, 앞의 책, pp.29-33 참조.

111) 貧賤之交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後漢書 宋弘傳).

명심하여 십년 전부터 자네를 위해 空閨를 알뜰히 지켜온 부인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라는 바일세.”

편지를 다 읽고 이함형은 등골이 오싹하였다. 하인에게 마루에 초석자리를 띄고 상을 차려 부인을 불러 물을 떠놓고 행례를 치르듯 재배하고 부인과 합방을 한 것이다. 퇴계의 편지로 하여금 그 후로는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다. 그들 부부와 자식들은 퇴계가 죽은 후 삼년상을 치르고 대대로 퇴계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¹¹²⁾고 한다.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들어내어서라도 바로 잡아 이끌어 주려는 퇴계의 殺身成仁이 아닌 殺身成人으로, 자신의 몸을 죽여서라도 제자를 바로 잡아주려는 持敬 곧 修己治人과 知行竝進의 처세관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5) 上通天文, 下達地理, 能察人事

퇴계의 과학정신은 그가 35세 때에 象數學에 밝은 數理哲學者로서 당대의 최고봉인 李純과 皇國經內編과 參同契를 논했으며, 65세 때에는 李湛이 물어온 田制算法과 律算論¹¹³⁾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했다.

만년에는 제자인 良齋 李德弘에게 璿璣玉衡을 원리대로 제작하라고 지휘하였다. 간재의 龜船圖¹¹⁴⁾는 퇴계의 이러한 과학정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세 때에 榮州醫院에 가서 수업을 한 것 또한 士인들이 쉽게 행할 수 없는 과학적인 자세로 여기서도 퇴계의 처세관의 미래 지향적인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活人心方을 模寫하고

112) 金光淳, 앞의 책, pp.130-135 참조

113) 李湛, 『靜存齋集』.

114) 李德弘, 『漢山記善錄』.

평생토록 건강에 유의하여 합리적 섭생과 과학적인 운동방법으로 당시로서는 높은 壽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현대적인 위생관리의 측면에서 그의 근대지향적인 사고와 처세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灌圃 魚得江(1470-1550)은 퇴계보다 나이가 30살이나 많았으나 忘年交를 하였고 관포시집의 발문을 지어주기도 했다.¹¹⁵⁾ 퇴계가 33살에 말미를 받고 귀향하고 있을 때 관포는 昆陽郡守로 있었으며, 퇴계에게 편지를 보내어 쌍계사에서 함께 유람하고자 하였다. 결국 쌍계사행은 다른 일 때문에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鵠島에서 바다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두 사람의 대화는 주로 ‘밀물과 썰물이 왜 생기는가? [論潮汐]’에 관한 문제였다.¹¹⁶⁾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潮汐은 달과 관계가 있고 이는 달의 힘[月引力]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¹¹⁷⁾까지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퇴계는 65세 되던 해에 문사들과 함께 1년의 週期律法인 桴三百의 算法과 律呂[六律三呂]의 법에 대하여 연구 강의한 바도 있어서¹¹⁸⁾ 퇴계는 당시의 선비들과는 달리 과학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광활한 우주의 철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 이것이 퇴계선생의 上通天文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그의 과학자다운 면모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퇴계가 풍기군수로 부임했을 때 고려말 安裕를 제사 지내기 위해 지은 백운동서원이 거의 폐허화되어 있었다. 서원지기를 불러 물은 즉 “밤이면 서원 앞 연못에서 귀신들이 통곡하며 난동을 치기에 견디다 못해 서원을 떠났다”고 했다. 이에 퇴계선생이 귀신을 제압하기 위해 연못 한 복판 커다란 바위에 ‘敬’자를 크게 써서 석수공에게 “깊게 새겨라”고 하였다. 그 후부터 작태를 부리던 귀신들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주역에 도통한 퇴계는

115) 魚得江, 『灌圃詩文集』, 「跋」

116) 『退溪先生文集』, 「論潮汐」.

117) 『退溪先生文集』, 「月引力」.

118) 丁淳睦, 앞의 책, pp 37-38 참조.

부적 대신 '敬'자로써 귀신을 제압하는 神統術을 발휘한 것이다. 또한 선생의 학문에는 邪慾이 티끌만큼도 없고 하늘의 理가 해처럼 밝아서 物과 나 사이에 구별을 볼 수가 없다. 선생의 마음은 천지만물과 더불어 하나로 융합되어 언제든지 거룩하고도 신묘한 세계를 이루었던 것이다.¹¹⁹⁾ 이것이 바로 퇴계선생의 下達地理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성주에서 온 삼십대 두 젊은이가 제자로 입문하고자 도산서원으로 찾아왔다. 한 사람은 寒崗 鄭述이고 또한 사람은 策庵 鄭仁弘이었다. 몹시 더운 날인 데도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도포를 입고 왔다. 정구는 덤다고 도포를 벗겠다고 하고는 도포를 벗어 벽에 걸고 갓까지 벗어놓고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정인홍은 정반대였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정좌하고 앉은 채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다. 학문을 주고받는 데도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다. 정구는 텅텅하면서도 천연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 정인홍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쟁 듯이 이론이 정연하여 하나도 책잡을 데가 없었다.

그 뒤 퇴계가 두 선비에게 隴雲精舍로 가서 쉬라고 일렀다. 퇴계는 동자를 시켜 "두 젊은이가 어떤 모습으로 쉬는지 알아보라"고 일렀다. 심부름을 갔다 온 동자가 "정구는 옷통까지 벗어부치고 우물가에 앉아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야단인데, 정인홍은 옷을 훌트리지 않고 부처님처럼 단정한 자세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다.

이튿날 두 사람이 제자로 입문하려고 폐백을 가지고 나타났다. 먼저 정구의 큰절과 폐백을 받음으로써 제자 입문을 허락하였고, 정인홍 차례가 되자, 퇴계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칠 것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 주기 바란다. 그대를 가르치기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인홍에게는 제자 입문을 거절하였다. 그때 다른 제자가 이유를 물은 즉 "정구는 常情에 따라 행동했고 정인홍은 常情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으니, 常

119) 『退溪先生文集』, 「言行錄」, 「金誠一記」.

情을 벗어난 사람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를 가르치겠나 싶어 거절하였다.”고 했다.

거절당한 정인홍은 뒤에 남명 조식의 제자로 입문하여 대학자가 되었으나,¹²⁰⁾ 벼슬이 높아지자 사색당파의 주동자로 정철, 윤두수, 유성룡 같은 충신을 탄핵하여 조정을 크게 어지럽히고 쫓겨나 癸丑獄事까지 일으켜 영창대군을 蒸殺하고 불의의 영화를 누리다가 仁祖反正에 斬刑되어 가산이 적몰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스승인 남명도 참혹한 追刑을 받았다고 한다.¹²¹⁾ 이는 能察人事로서 知人之感에 뛰어난 퇴계가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위로는 天文에 통했고, 아래로는 地理에 통달하여 사람의 앞일을 능히 예견할 수 있는 能察人事의 처세관을 지녔기에 못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맺는 말

이상 본론에서 논의한 바를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학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걸쳐져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철학분야와 문학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둘째, 퇴계학에 대한 국외 연구동향을 일본, 대만, 홍콩, 중국, 구미제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가 가장 활발하여 논문만

120) 鄭仁弘, 『築庵集』

121) 鄭飛石, 앞의 책, pp.113-117 참조.
金光淳, 앞의 책, pp.124-129 참조.

도 200여 편에 이르고, 대만의 경우는 퇴계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40여 명, 관련논문은 70여 편에 달한다. 홍콩의 경우는 1987년에 국제퇴계학회를 개최한 후에 지금까지 홍콩사람으로서 퇴계학 관련학자가 4명 정도 있다. 중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120여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국제퇴계학 발표대회에 발표된 논문만 110여 편이다. 구미제국의 경우 미국, 소련,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호주, 체코, 이태리, 유고, 스위스 등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100여 편의 논문이 나왔음을 밝혔다.

셋째, 지금까지 퇴계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18 차례나 되고 이에 참가한 나라도 동양 5개국, 구미제국이 10개국이나 된다.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만도 576편이나 되어 퇴계학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계학과 관련된 연구 기구와 학회설립 현황도 도표로 제시하였다.

넷째, 퇴계의 처세관을 存養省察과 繼往開來, 經濟倫理와 勤儉節約, 政治要諦와 與民同樂, 修己治人과 知行竝進, 上通天文하고 下達地理하여 能察人事로 나누어 고구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存養省察하고 參古酌今하여 繼往하면서도 開來하였고, 근검절약하되 정직한 경제윤리를 강조한 점, 정치의 기본 要諦는 與民同樂이란 점, 修身齊家로부터 시작하는 修己治人을 知行竝進해야 한다는 점, 위로는 天文에 통하고 아래로는 地理에 밝아 능히 사람의 내일을 알아볼 줄 아는 知人之感의 식견을 가지고 세상에 처신하였기에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았던 문신이며 세계적인 학자로서 추앙을 받게 되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 자료

- 『陶山全書』 卷四
『尙書』, 『周書』
李德弘, 「退溪先生墓誌敘」
『退溪先生文集』, 「丹陽山水記」
『退溪先生文集』, 「陶山記」
『退溪先生文集』, 「陶山雜詠」
『退溪先生文集』, 「言行錄」
『退溪全書』, 「戊辰經筵啓筭」

■ 저서 및 논문

- 琴章泰, 「退溪學研究의 回顧와 展望_哲學的領域」, 『韓國의 哲學』18,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0.
金光淳, 「退溪文學에 나타난 修養論의 現代的 照明」, 『어문론총』28, 경북어문학회, 1994.
金光淳, 「退溪文學에 있어서 自然觀과 人間觀」, 『淵民壑志』1, 1993.
金光淳, 「退溪文壑中所現의 修養論之現代的照明」,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1995.
金光淳, 『退溪先生』5, 국제퇴계학회 대구경북지부, 2002.
金光淳, 「退溪學의 研究現況과 現代的 意味」, 『동방한문학』12, 동방한문학회, 1996.
김세한, 「일본에서의 퇴계학연구 동향과 성과」, 『한국의 철학』19,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1.
김용장 편, 「퇴계학계소식」 No.20-29, 퇴계연구원, 198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서애집』2, 『고전국역총서』12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 謝寶森, 「李退溪 應變의 道」, 『퇴계학보』 75, 76, 퇴계학연구원, 1992.
- 山崎道夫, 「稻葉菴齋와 退溪學」, 『퇴계학보』 36, 퇴계학연구원, 1982.
- 서수생, 「퇴계는 문학을 어떻게 보았나」, 『문학사상』 25, 문학사상사, 1974.
- 서수생, 「퇴계문학의 연구」, 『한국의 철학』 1,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3.
- 서원섭, 「퇴계의 도산십이곡연구」, 『한국의 철학』 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4.
- 松田甲, 『韓日關係詞研究』, 成進文化社, 1982.
- 松戶光夫, 「退溪學統이은 上塚道學」, 『퇴계학보』 2, 퇴계학연구원, 1974.
- 송희철, 「구미제국에 있어서의 퇴계학연구 동향과 그 성과」, 『한국의 철학』 19,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1.
- 辛冠潔, 「再論退溪心學」, 『퇴계학보』 43, 퇴계연구원, 1984.
- 신귀현, 「퇴계학의 국제화와 동서철학의 비교」, 영남대 출판부, 2003.
- 阿部吉雄, 「李退溪-그의 行動과 思想(3)」, 『퇴계학보』 23, 퇴계학연구원, 1979.
- 阿部吉雄, 「日本朱子學 朝鮮」, 동경대출판부, 195.
- 阿部吉雄, 「佐藤直方派의 李退溪尊信」, 『퇴계학보』 3, 퇴계학연구원, 1974.
- 王甦, 「退溪詩學1」, 『퇴계학보』 20-25, 퇴계학연구원, 1978-1980.
- 宇野哲人, 「일본에 있어서의 이퇴계연구」, 『퇴계학보』 창간호, 퇴계학연구원, 1970.
- 宇野精一, 「日本에 있어서 李退溪研究少史」, 『퇴계학보』 44, 퇴계학연구원, 1984.
- 이가원, 「이황」, 『한국한문학사』, 민중서관, 1961.
- 이가원, 「퇴계 시의 특징」, 『퇴계학보』 44, 퇴계학연구원, 1984.
- 이가원, 「퇴계의 시가문학연구」, 『퇴계학연구』, 퇴계선생 400주년 기념사업회, 1972.
- 이노형, 「퇴계의 철학사상과 문학사상의 사회적 성격」, 『한국의 철학』 16,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8.
- 이동영, 「환산별곡에 대하여-퇴계의 개작이 아니다」, 조선일보, 1955.
- 이동환, 「퇴계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철학』 18,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0.

- 이동환, 「퇴계시에 대하여」, 『퇴계학보』19, 퇴계학연구원, 1978.
- 이원주, 「도학파의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이원주, 「퇴계선생의 문학관」, 『한국학론총』8, 계명대학교, 1981.
- 張立文, 「朱熹與李滉的易學思想比較研究」, 『퇴계학보』43, 퇴계학연구원, 1984.
- 張志淵, 『朝鮮儒學淵源』, 三星文化財團出版社, 1975.
- 정비석, 『퇴계일화집』, 국제퇴계학회 경북지부, 1998.
- 정순목, 「대만·중국에서의 퇴계학 연구」, 『한국의 철학』19,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1.
-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 정순목, 퇴계정전, 국제퇴계학회 경북지부, 1990.
- 조동일, 「이황」,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 『조선왕조실록』2, 현종 05/06/03.
- 조선왕조실록 CD-ROM간행위원회편, 『국역조선왕조실록』, 효종05/11/07.
- 조윤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 『조선시기가사간』, 동광당서점, 1937.
- 陳來, 「退溪心學의 再研究」, 『퇴계학보』70, 퇴계학연구원, 1991.
- 蔡茂松, 「退溪栗谷性理學的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71.
- 崔根德, 「退溪思想의 詩的 照明」, 『한국학보』16, 일지사, 1979.
- 崔珍源, 「敬, 諷諭, 賞自然, 國文學과 儒學」,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학』, 서울대출판부, 1982.
- 玄相允,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48.
- 橫井小楠, 『生涯と 業績』, 熊本市教育委員會, 1898.

Abstract

The Study on Research Trend of Toegyeahak and Toegye's Art of Living

Kim, Kwang-Soon

Consequently, what had been mention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omestic research trend regarding Toegyeahak(退溪學) was various from multi fields, and especially active in philosophy and literature. So I inquired out the research trend of the two fields.

Second, I classified the foreign research trend regarding Toegyeahak into "Japan, Taiwan, Hong Kong, China, and the Occident", and investigated them. Among them, the study in Japan was at a best pace, the number of dissertations of it was about 200 volumes. In Taiwan, more than forty scholars have been making a study of Toegyeahak. And they have made known the dissertations about 70 volumes. In case of Hong Kong, after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egyeahak at 1987, four scholars have been studying it. And in China, about 110 volumes of dissertations which were announc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egyeahak where about 120 volumes of dissertations were published. In case of the Occident, schola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ussia, Germany, France, Estonia, Holland, Australia, Czechoslovakia, Italy, Yugoslavia, Switzerland and so on published about 100 volumes of dissertations.

Third, until now,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Toegyeahak were held 18 times, participating nations were oriental 5 countries and western 10 countries, and 576 dissertations were announced. Therefore, we can be assured that Toegyeahak is now becoming the global issue. And the research institution and the present status of the foundation of academy about Toegyeahak was presented with the chart.

Fourth, I classified Toegye's art of living into "Gentleness and Humbleness(溫和謙讓) · Continuing Development(繼往開來)" · "Economic Ethics(經濟倫理) · Thrift and Saving(勤儉節約)", "Key of Politics(政治要諦) · Enjoying with People(與民同樂)", "Rule over People after Mental Training(修己治人) · Doing the Right Thing(知行並進)" and "Understanding of

Astronomical Phenomena(上通天文) and Geography(下達地理) . Foresight of Human Affairs(能察人事)” and investigated them.

Key Word

Research Trend of Toegyehak, Toegye's Art of Living